

세망내피증(RE)



유 일 응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요사이 RE(Reticuloendotheliosis)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며 산란저하에 대한 원인의 한가지로도 이야기 되는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RE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58년에 Twiehaus가 종양병소를 가진 칠면조로부터 칠면조와 닭에 강한 병원성을 가진 계대 가능한 병원체를 분리하였다.

이것을 T주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몇가지 주로는 CN, CS, DIA 등이 있다.

RE는 세망내피계 세포의 급성 증식성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망내피증인데 백혈병, 육종 바이러스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RE가 이야기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뒤에서도 이야기 되겠지만 RE의 경우 마렉과 백혈병과의 감별이 대단

히 곤란하다는 것이다.

RE의 원래 숙주는 칠면조로써 칠면조의 백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리, 메추리, 칠면조등에서 자연발생예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2년전 닭에서 바이러스분리에 성공하였다. 국내발생의 특징은 4주령정도에서 발육 불량 및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며 깃털이상 등을 나타냈다. 10주령 이후에서는 장기에 종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렉이나

백혈병으로 간주되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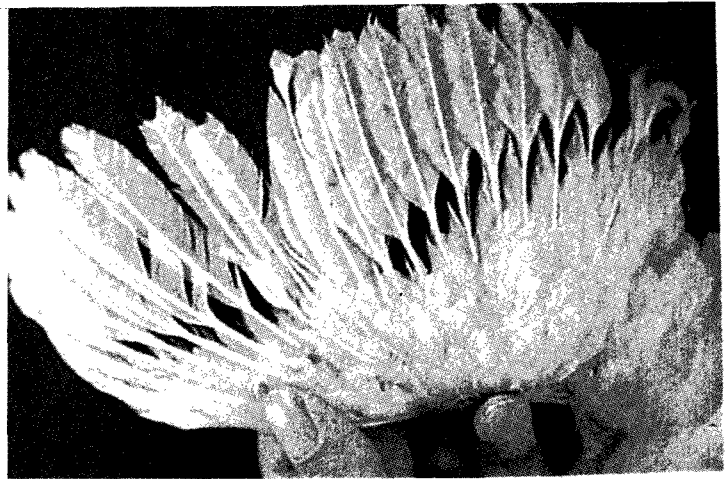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종계군의 혈청 항체검사를 해 본 결과 높은 항체 양성율을 계군 혹은 개체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의 전파는 배설물을 통한 경구 혹은 비강 등 어느 경로로나 감염이 가능하며 감염계의 우모근에 바이러스가 묻어 전파도 가능하는데 이는 마λεκ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편 종계를 통한 난계대전염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있다. 실험적으로 초생추 접종시 1~3주간에 폐사가 일어나며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한편 원기소실로 증상없이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는 접종후 3주령 정도에 날개깃털의 이상을 일으키며 발육불량, 빈혈 등을 동반한 산발적 폐사를 일으킨다.

접종후 1개월 이후는 말초신경을 침해하여 운동실조 마비를 일으킨다. 장기간 닭을 관찰할 경우(120일 이상) 임파성 백혈병과 구별할 수 없는 임파종이 간, F



세망내피종 바이러스 접종 병아리의 깃털 이상.

낭, 비장, 신장, 난소 등에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때 야외에서는 백혈병으로 진단될것이기 때문에 RE증상으로 의심되는 것은 어린일령의 발육지연 등을 포함한 폐사율이 높은 경우에서라고 생각된다.

이 병의 진단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마λεκ과 백혈병과의 감별진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장병변은 조직적으로 어느정도 감별이 가능하다. 말초신경에 출현하는 세포침윤은 마λεκ이나 백혈과 구별이 곤란하다.

그러나 우모의 이상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RE진단에 참고가 될 것이다.

RE는 감염되었다고 반드시 숙주가 발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거나 항체가 양성이라도 진단의 열쇠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RE의 닭에서의 자연발생예가 보고된 만큼 종양, 말초신경의 병변, 우모의 이상, 높은 폐사율 등이 있는 경우는 RE를 진단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바이러스분리가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백신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소득 등 방역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기대**